

구 모지 세관

1912년에 지어진 이 세관은 모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. 최초의 모지 세관은 1910년에 전소되었고, 2년 후에 이 벽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. 1945년의 모지 공습으로 지붕이 파괴된 후 이 건물은 오랫동안 관자가 쳐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. 1991년부터 복원이 시작되어 1995년에는 모지 항구 역사 지구의 일부로 재개장했습니다. 현재는 제철 과일을 사용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, 세관의 단속과 밀수에 관한 전시가 있는 공공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단속 대상인 불법 약물과 약물 밀수 수법(신발, 샴푸 병, 조각상 속 등)에 대한 전시도 있습니다.

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(1868~1912)의 저명한 건축가 쓰마키 요리나카(1859~1916)의 작품입니다. 네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, 돌출된 도머창과 지붕을 따라 있는 석조 코니스, 샹들리에 등에 그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. 내벽은 과거 하얀 회반죽으로 덮여 있었지만, 원래의 벽돌 구조를 노출시키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.

3층에는 해안에 접한 전망실이 있어 간몬 해협을 오가는 배와 도개교가 잘 보입니다.